

해외거주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

-아버지를 통해본 언어와 정체성-

Education Issues of Multicultural Children Living Overseas
-Language and Identity from Father's Perspective-

선원석

SUN, Wonsuk

2019.08.12

Social Integration Research Center, Kangwon National University, Korea

발표 취지

- 국제 결혼을 매개로 형성된 다문화 가정의 교육 문제에 대한 국내 연구의 제한된 시각, 연구대상이 국내에 한정, 주 연구대상이 한국인 아버지와 저개발국 출신 어머니 가정
- 연구의 관점이 다문화가정의 빈곤과 외국 출신 어머니의 인권 문제로 귀결
- 새로운 시각과 대상: 해외거주 다문화 가정, 자녀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의 아버지의 역할, 저개발국 이민 다문화 가정

조사 개요

-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
- 연구지역과 대상: 필리핀(마닐라, 세부)
- (본연구는 일본의 공동연구자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, 해외거주 일본인 다문화 가정은 한국, 중국, 태국, 필리핀임)
- 샘플링: 스노볼식
- 인터뷰형식: 반구조적 인터뷰(주 인터뷰 테마는 후술)
- 시간: 1.5-2시간
- 인터뷰 수: 10명, 그중 6명을 분석

연구 방법

- 테마를 설정한 반구조적인 인터뷰
- 내러티브(narrative) 이론을 도입
- 인터뷰 대상의 라이프 스토리 듣기
- 시간의 흐름과 일어난 일을 이야기 하기
-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로 재현
- 인터뷰어의 감정과 동의 호소
- 이야기의 구조적으로 재구성

연구 테마

- 언어 교육과 정체성

- 다문화 가정의 자녀 양육과 교육의 전과정을 걸쳐 일관된 과제 중의 하나인 언어 문제를 테마로 대상과 인터뷰를 진행
- 내러티브는 이주 배경, 현재의 생활, 자녀와의 놀이와 대화, 학교 선택, 정체성 문제로 이어짐
- 동남아를 이주지로 선택한 한국인 신이민상(新移民像)
- 언어교육과 학교선택의 결과로 이어지는 현지 생활 실태
- 언어와 정체성과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재구성

일본인 다문화 가정의 테마

4개국 공통	
영어우선	육아 씨클
일본인학교와 교육의 외주화	대가족의 아이 키우기
중국	한국
언어의 다양성	언어의 유사성
바쁜 아버지	한류 붐과 그 후
태국	필리핀
일본의 존재감	변하고 있는 필리핀 이미지
일본과 취직	증가하는 일본 젊은이들의 해외취업

한국인 다문화 가정의 테마; 언어와 정체성

- 영어 우위의 다언어 가정
- 생활언어: 영어, 타갈로그(출신지에 따라 비사야), 한국어의 순
- 학습언어: 영어 중심
- 예외적으로 타갈로그가 유창한 한 가정을 제외하고 가정내 공용어는 영어가 대부분
- 영어 우위는 필리핀의 언어환경과 교육환경에 의해 실현
- 한국어 교육은 전적으로 아버지 몫: 아버지의 의지와 실천이 자녀의 한국어 교육과 정체성 계승에 결정적

다양한 다문화 가정내 영어 우수 맥락

- 영어는 미래의 인적자원: "미래를 본다"
- 필리핀의 언어환경과 교육환경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?
- 부부간 대화가 영어니까 가정내 언어를 영어로 통일
- 정체성과 무관한 도구적 측면의 영어 교육

한국어 교육의 고민과 실천

- 필리핀이라는 생활 환경 속에서 한국어 교육은 아버지와 자녀 모두에게 추가 부담
- 한국어 교육은 전적으로 아버지 부담
- 6명중 1명을 제외하고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의지 확인
- 예외의 1명은 아이를 필리핀 아이로 키우기로 부부간에 결정하고 가정에서 한국어 교육 안 시킴..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은 자녀 자신의 몫, 반대로 어머니가 최근 한국어 교육을 요구

한국어 교육 실천

- 1. 자녀에게 한국어만 쓰고 어머니한테도 한국어 학습을 요구(주 1회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학습), "아버지가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한국어를 공부해야 한다": 언어와 정체성의 일치
- 2. 자녀에게 한국어 사용, 년 2회 한국 방문(한국 학교도 다님), "한국문화를 배웠으면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", 그런데 이 가정은 자녀를 중국인 학교에 입학, 동남아에서는 중국인 자본의 세력이 크고 그들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할 수 있어야한다는 의견: 언어를 문화적인 측면과 더불어 기능적 도구적 측면이라는 양의적으로 접근

- 3. 집에서 자녀와 한국어로 대화, 단 적극적으로 가르치 지는 않음, 아이가 부담 갖지 않을 정도로, 아이는 8할을 영어로 대답, 자신이 한국인이니까 자신의 모어로 아이와 대화: 아이에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정체성을 표현 확인하는 수준
- 4. 영어 중심 속에서 한국어 교육 실천 따르지 못하는 케이스..아버지와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으면 된다 수준, 그러나 실천이 따르지 못하여 고민, 한 케이스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세종학당을 보내기 위해 이사를 계획중: 아버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계승을 원하기는 하지만 실천이 따르지 않음
- 가설: 필리핀에서의 생활수준과의 관련성; 생활수준의 높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아버지의 정체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에게 계승하려 하고 실천한다

맺음말

- 다 언어, 영어 우위의 환경 속에서 도구적 영어 교육의 우위
- 영어우위의 환경 속에서 다문화 가정의 영어 우위 교육은 자연스러운 선택
- 한국어 교육의 선택과 실천은 다양한 맥락 속에서 해석 가능
- 한국어 교육과 정체성 계승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
- 가설적으로 정체성 계승과 한국어 교육 실천은 이민자의 생활조건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.

子育てサークル



能力



육아 동아리



능력



감사합니다